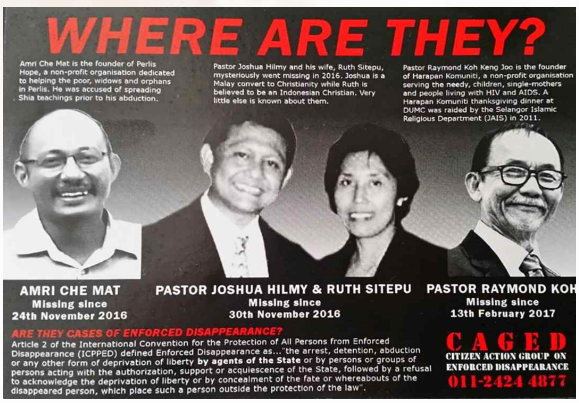
박택수/김소연 기도편지

2026. 11. 2

주안에서 믿음의 동역자 되신 여러분께!!!
한국은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시원한 가을의 날씨겠네요. 계절의 변화가 없이 일년내내 무더운 이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국의 가을 날씨가 그립습니다.

1. 납치되어 실종된 레이몬드목사 민사소송 항소심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의 대낮 거리에서 복면을 쓴 괴한들의 조직적인 군사작전식 행동에 의해 레이몬드목사님이 납치되어 실종된 지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잔나사모님과 자녀들은 지난 9년 동안 말레이시아정부와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 해 11월 마침내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과입니다.





• 2017년 2월 13일: 대낮의 피랍 사건

차량 7대와 최소 15명의 복면 괴한이 단 40초 만에 코 목사님의 차량을 포위하고 납치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생생히 포착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개입을 부인했으나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 2019년: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SUHAKAM)의 결론

조사 결과, 레이몬드목사님의 실종은 일반 납치가 아닌 말레이시아 경찰청 특수부 요원들이 개입한 "국가 기관에 의한 강제 실종"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 2025년 11월 5일: 역사적인 고등법원 승소 판결

가족들이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은 마침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상부 지시에 따라 자의적으로 목사님을 강제 실종시켰음을 명시하며, 실종 기간을 계산해 약 3,100만 링깃(한화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행방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현재의 영적 전쟁과 다음 달(11월) 항소심의 고비

역사적인 승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조직적인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지급 및 재조사 보류(Stay of Execution) 상태

말레이시아 법무부(AGC)는 고등법원의 판결 전체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올해 2026년 7월 29일, 항소법원은 정부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안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배상금 지급과 경찰의 재조사 명령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2026년 11월 말 본안 항소심(Substantive Appeal)

본안 심리일은 이번 달인 11월 말로 예정되어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에서 정부와 경찰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가리는 본안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정부가 국가 권력의 잘못을 덮으려고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 현재 상태

지난 2026년 7월 29일, 항소법원은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배상금 지급과 경찰 재조사 명령의 집행을 일시 보류(Stay of Execution)하는 결정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11월 30일 재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야만 실질적인 배상과 행방 규명을 위한 재조사가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11월 말 단 하루의 공판으로 끝날지, 추가 심리일이 지정될지는 당일 재판부의 진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최악의 인도네시아발 연무(Haze) 위기

최근 엘니뇨 심화로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연무가 국경을 넘어와 말레이시아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포함하여 조호바루의 파시르 구당, 말라카 등 여러 지역의 공기질지수(API)가 “매우 불건강” 또는 “위험” 수준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학교가 휴업하고 체육시설이 폐쇄되었습니다. 또한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말레이시아 정치권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더 강력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진화 작업을 위해 공중 자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3. 전도여행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날씨임에도 공기가 좋아진 날에는 전도를 나갔습니다. 늘 그렇듯이 전도를 나갈 때마다 주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전혀 사람이 없을 것만 같아도 예비한 영혼이 있고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만 같은 외모와 분위기를 풍겨도 다가가서 인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면 귀를 기울여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요. 복음을 전하며 내 영혼도 함께 소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역하도록 허락하신 그 날까지 더욱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우리 가족

당뇨가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저는 당뇨병성 망막증 치료를 받고 있고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답니다. 온전히 치료되어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대학 2학년인 예인이는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려고 합니다. 아직 언제 입대할지 결정된 것은 없는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2학년을 잘 마치고 군대도 무사히 잘 다녀올수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이번 달 11월 말에 있을 레이몬드목사 실종 항소심 재판부 위에 하늘의 공의가 임하도록

재판을 맡은 항소법원 판사들이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고등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며 레이몬드목사님의 생사와 행방을 솔직하게 고백하도록.

2. 수잔나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새 힘을 주시도록.

주께서 9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수잔나사모님이 최근 법원의 집행 중지 결정으로 실망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등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수잔나사모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변호인단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3. 말레이 무슬림들을 위한 하나님의 추수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서, 특히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말레이 무슬림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도록.

4.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며 만나 복음을 전한 말레이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때에 주께 돌아오도록. 꿈과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 받을 수 있도록.

5. 인도네시아에서 넘어오는 연무(헤이즈)로 인해 야외에서 전도해야 하는 우리들의 사역이 지장받지 않도록. 속히 인도네시아 산불이 진화되도록.

6. 성령님께서 박선교사 당뇨를 치료해 주시고 당뇨병성 망막증과 고지혈증을 치료해 주시도록

7. 예지와 예인이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예인이의 학업 위에 기름부어 주시도록. 2학년 마치고 군대에 가려고 하는데 입대할 시기와 군복무하는 동안 안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